

게임플레이 방식&타 게임과의 차별점 및 방향)

B877004 김영신

게임시작)

- 게임 시작 시 연산자 카드 9장을 뒷면이 보인 상태에서 섞은 다음 보드 중앙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뒷면이 보이게 배치한 후 뒤집어 공개한다.
- 세트 시작 시 각 플레이어는 숫자가 적힌 '넘버토폴'을 숫자 별(-1, 0, 1, 2, 3, 4, 5)로 1장씩 가져온다. 모든 플레이어가 다 가져갔으면 남은 넘버토폴 카드를 뒷면이 보인 상태로 섞은 후 각자 2장씩 랜덤하게 가져간다. 그 후 각자 자신의 넘버토폴 카드들을 뒷면이 보이게 섞은 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배치한 후 뒤집어 공개한다.
- 각 플레이어는 '액션카드'를 플레이 하는 인원 수에 맞게 가져간다.
 1. 2인 플레이: 1카드 3장, 2카드 2장, 3카드 1장, 맨 아래로 보내기 1장, 교환 1장 = 총 8장을 가져간다.
 2. 3인 플레이: 1카드 2장, 2카드 2장, 3카드 1장, 맨 아래로 보내기 1장, 교환 1장 = 총 8장을 가져간다.
 3. 4인 플레이: 1카드 2장, 2카드 1장, 3카드 1장, 맨 아래로 보내기 1장, 교환 1장 = 총 8장을 가져간다.
- 기본 카드를 다 가져갔으면 모든 플레이어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

람이 '황금카드'를 1장 가져간다. 황금카드는 가진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무슨 카드인지 확인할 수 없다.

를)

- 턴 베이스 게임으로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한다.
- 자신의 턴에 플레이어는 배치된 연산자의 순서와 자신의 넘버토폴 카드의 순서를 보고 순서에 맞게 예상 점수를 계산한다.
-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액션 카드를 1장 사용하여 넘버토폴 카드의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플레이어와 넘버토폴 카드를 교환할 수 있다. 액션카드를 사용하면 다음 순서의 플레이어에게 턴이 넘어간다.
- 황금카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신의 턴에 황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. 황금카드는 세트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원하는 세트에 자신의 턴에 사용할 수 있다.
- 플레이어가 자신의 턴에 액션카드를 모두 소모하면 최종적으로 배치된 자신의 넘버토폴 카드의 순서와 연산자를 보고 순서에 맞게 계산하여 점수를 얻는다.
- 모든 플레이어가 액션카드를 소모하여 세트가 끝나게 되면 해당 세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부터 등수를 매겨 단상에 자신의 말을 올

린다.

- 다음 세트가 시작되면 황금카드를 제외하고 세팅했던 카드들을 종류별로 모은 뒤 똑같은 방식으로 카드와 연산자를 가져온다. 이 때 가장 점수가 낮은 플레이어는 황금카드를 1장 가져올 수 있다.
- 3세트까지 플레이 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한다. 이 때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플레이어가 2명일 경우(점수가 같을 경우) 마지막 세트에서 배치된 연산자 카드의 곱하기 연산을 더하기 연산으로 치환했을 때 더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한다.

타 게임과 차별화된 점 및 방향)

- 타 게임과 차별화된 요소
 1. 모든 플레이어가 서로가 가진 카드를(황금카드 제외) 볼 수 있으며 게임 플레이에 숫자와 사칙연산을 도입하여 상대방의 카드를 보고 점수를 예측하여 플레이 해야함.
 2. 세트 종료 시 가장 점수가 낮은 플레이어한테 황금카드를 줌으로써 뒤쳐진 플레이어에게 역전의 기회를 제공.
 3. 황금카드를 제외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동일한 넘버토폴 카드와 액션카드를 가지고 진행하여 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적음.

- 게임의 방향성: 넘버토플은 기능성 게임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향한다.

게임 방식이 간단하여 남녀노소,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. 또한 다양한 숫자들로 사칙연산을 하면서 진행하므로 저연령층의 계산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.